

엑스 템포레

: 칸트에게서 표상(Vorstellung)으로서의 시간

베르너 하마허 지음
미야자키 류스케 · 시미즈 카즈히로 일역
김상운 한역(일어 중역)

철학의 전통에서 시간은 무엇보다 관계로 사고된다. 플라톤에게 시간이란 무엇보다 먼저 엑사이프네스(εξάιφνης, 돌연 · 순간)이다.¹⁾

* Werner Hamacher, "Ex tempore - Zeit als Vorstellung bei Kant", In: *Politik der Vorstellung*, Herausgegeben von Joachim Gerstmeier und Nikolaus Müller-Schöll Verlag Theater der Zeit: München 2006, S. 68-94.

* ヴェルナー・ハーマッハー, 「엑스·템포레 : 칸트における表象 (Vorstellung) としての時間」(上)·(下)

* 『순수이성비판』(KrV)에서의 인용은 빌헬름 바이슈텔 판본을 따른다[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Werke in sechs Bänden, 2. Bd.), hrsg. von Wilhelm Weischedel, Wiesbaden: Insel Verlag 1956]. 『판단력비판』(KdU)에서의 인용은 Karl Vorländer에 의한 철학문고판을 따른다[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hilosophische Bibliothek 39), 3. Aufl., hrsg. von Karl Vorländer, Leipzig: Verlag der Dürr'schen Buchhandlung 1902]. 인용 대목의 쪽수는 『순수이성비판』에 대해서는 제1판(A) 내지 제2판(B)로, 『판단력비판』에 대해서는 제3판(B)에 기초하여 표기

이것은 측정 가능한 크로노스의 경과들 사이에 있으며 공약 불가능한 순간으로서 번쩍이고, 즉 크로노스의 측량 규정을 따르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에 크로놀로지적인 규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엑사이프네스란 이 순간에 의해 포착되는 바로 그것을 지지대로 삼는 것이 아닌, 하나의 관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근원적 시간은 눈(v u v :지금)이다.²⁾ 이 ‘눈’은 하나의 경계=한계로서, 지나간 ‘눈’과 도래할 ‘눈’을 구분한다. 그러나 이 ‘눈’ 자체는 지나간 ‘눈’도 도래할 ‘눈’도 아니고, 그 양자의 비동시성이라는 관계에 다름 아니다. 이 비동시성이 그 비동시적인 것끼리 접하는 동시성에 있어서 모든 동질

한다. 『판단력비판』에 대해서는 []를 써서 아카데미판 전집 5권의 쪽수도 표시한다.

1) [일역자 플라톤, 『파르메니데스』, 156d-e를 참조. “그런데 이 순간(엑사이프네스)이라는 녀석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아토포스) 것으로, 운동과 정지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서, 어느 시간(크로노스) 안에도 없다. 그리고 이 순간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로부터 나오으로써, 운동하고 있는 것이 정지하는 것으로 이행하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 운동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다”(『파르메니데스』, 田中美知太郎 訳 『플라톤全集 4』, 岩波書店, 1975年, 114頁. 또는 『파르메니데스』, 山本光雄 訳 『플라톤全集 2』, 角川書店, 1974年, 522頁).

2) [일역자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218a(4권 10장) 및 234a(6권 3장)를 참조. “또한 지금은 지나간 것과 와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지금이란 한계(페라스)이다. …”(『자연학』, 出隆·岩崎允胤 訳 『아리스토텔레스全集 3』, 岩波書店, 1968年, 165-166頁). “예전에 있었던 것에는 극단(極端, 에스카톤)이 있으며 … 와야 할 것에도 극단이 있다. … 거기서 우리는 이 극단이 양자의 한계라고 말한다. … 거기서 양자의 시간의 극단인 지금은 하나의 동일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곳, 231-232頁).

적인 지금(눈) 點點을 일렬로 늘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에티우스에게서 근원적 시간은 흐르는 시간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눈크(nunc : 지금)이다.³⁾ 이 원천적 점에서 시간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이 원천적 점에서 시간의 흐름이 자신의 통일적 연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는 이 눈크가,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 운동의 끝(종말)인 동시에 도래할 시간운동의 시작이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시간의 원환을 그려내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론적 감성론의 일반적 주해」에서의 유명한 시간구조 분석 속에서 시간을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관계 표상**으로서도 특징짓는다. 관계라는 개념만으로도 쉽

않지만 — 순수 **오성**의 범주에 관계 개념이 채용됨으로써 더 이상은 풀릴(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암시가 관계 개념에 깔려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관계 개념의 복잡성이 암시되고 있다— 그것 이상으로, 칸트에게서 시간이라는 형식의 정의를 부여해주는 **관계 표상**이라는 개념은 한층 더 쉽지 않다. 바로 이 개념에서 시간의 ‘코페르니쿠스적 인’ 혁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나타내는(표상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관계가 더 이상 아니며, 오히려 표상한다[Vorstellen : 앞에 세운다]라는 작용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표상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표상작용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관계, 즉 관계맺음 속에서 생겨나는 관계이며, 따라서 관계 형식 그 자체가 발생한다는 사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이다.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직관에 속하는 모든 것, 그리고 직관에 의해 이끌리는 감성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단순한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KrV, B 66)⁵⁾라고. 이 관계의 모든 형식을 칸트는 표상으로서 특

3) [일역재] 보에티우스, 『삼위일체론』 4장을 참조. “우리의 《지금(눈크)》은 이른바 흐르고 있고(클레렌스), 이것이 시간과 영속성(센피테르타스)을 만들어 내지만, 신의 《지금》은 계속 존재하며, 움직이지 않고 멈춰 서 있으며(콘시스텐스), 이것이 영원성(아에테르타스)을 만들어낸다. 이 명사에 《항상(센벨)》을 덧붙인다면,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신의 지금의 흐름(클루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흐름은 영속성이다”(『三位一體論』, 坂口ふみ 訳, 『中世思想原典集成5——後期ラテン教父』, 平凡社, 1993年, 185頁).

4) [일역재]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학 주해』 4권 18강 5번을 참조. “실제로 지금(눈크)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즉 자신의 상태를 계속 바꾸는 것에 호응하고 있는 한, 시간에서의 이전(포리우스)과 이후(포스테리우스)를 나누고, 또 자신의 흐름(플루스)에 의해 시간을 만들어낸다 — 점이 선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함께, 이미 언급된 보에티우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참조하면서 ‘시간’을 언급하는 『신학대전』 1부 10 문제도 참조(『神学大全1』, 高田三郎 訳, 創文社, 1960年, 169-191頁 및 343-345頁).

5) 『순수이성비판』(KrV)에서의 인용은 빌헬름 바이슈델판에 의한다(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Werke in sechs Bänden, 2. Bd.), hrsg. von Wilhelm Weischedel, Wiesbaden: Insel Verlag 1956). 『판단력비판』(KdU)에서의 인용은 칼 포안다에 의한 철학문고판에 의한다(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Philosophische Bibliothek 39), 3. Aufl., hrsg. von Karl Vorländer, Leipzig: Verlag der Dürschens Buchhandlung 1902). 인용 대목의 쪽수는 『순수이성비판』에 대해서는 1판(A) 내지 2판(B)에, 『판단력비판』에 대해서는 3판(B)에 근거하여 표기한다(『판단력비판』에 대해서는 ()를 써서 아카데미판 전집 5권의 쪽수도 표시한다).

징짓는다. 이에 따르면 직관의 형식 — 즉, 단순한 형식으로서의 직관 그 자체 — 은 관계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도 표상작용 속에서 수행되는 감성적 관계이며, 이때 표상되는 경험적 대상이 이 관계에 미리 주어져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상의 가능성은 이 표상작용의 형식 속에서 비로소 생길 수 있는 것, 이 표상 형식의 지평 속에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감성적 관계 일반, 감성이라는 관계 형식, 단순한 관계 구조로서의 감각 — 이런 것으로서의 직관은 그 자체로는 무이며, 주어진 것이나 이미 형성된 것으로서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직관은 하나의 작동[Tätigkeit]이며, 직관의 형식으로서의 형식-작용[Form-Tätigkeit]이다. 이리하여 직관한다는 것은 무관심한 관찰이 아니다. 즉, 눈앞에 있는 것의 촉발을 해제하고 무관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다. 직관한다는 것은 ‘수용’도 아니다. 즉, 감각 · 표상 · 이미지의 세계에서 여건을, 텅 빈 수용물 — 그 존재론적 중립성도 설명할 수 없는 채인 것에 틀림없다 —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관한다는 것은 **수용성**의 능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바로 그런 한에서, 작동으로서의 관계이며, 관계맺음의 작동으로서의 감성이며, 관계-작용[Relations-akt]으로서의 단순한 감각sinn이다. 이 관계 작용으로서의

여기에 제출하는 주석 · 고찰은 표상-시간에 대한 칸트의 철학의 전폭에 걸친 것은 아니다. 논할 수 없었던 점 중에는 특히 「초월론적 분석론」에서의 “지각의 예료 **予料**” 장에 제시되어 있는 시간과 내포성 사이의 관계가 있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간과 오성 범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전달 가능성의 시간 및 역사의 시간에 대해서도 논할 수 없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었던 칸트의 시간철학에서의 이런 논점들은 기회를 다시 한 번 다른 콘텍스트에서 탐구해야 한다.

직관에 의해 칸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 시간 구성의 분석이라는 문맥에서는 — 아직 대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기 신장 · 긴장의 작동, 즉 객체 없는 감성적 인텐티오[intentio]이다. 이러한 작동으로서의 직관, 즉 관계항 없는 관계작용, 미리 주어진 대상이 없는 관계의 개시[시작]여야만 직관은 스스로를 대상[Gegenstand]과 관계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직관이 대략적인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에 앞서 단순한 인텐티오의 작동으로서 그 직관이 <미리>[Voraus] 일반으로의 신장 · 긴장을 개시[시작]해야만 한다. 이 <미리>에서야 대체로 가능한 <대치해서>[Gegenüber]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대상 관계의 기저가[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미리>에로 신장해가는[뻗어가는] 것이며, 따라서 가능한 <대치해서>에로 <스스로를 미리 세우는>[Sich-Voraus-Stellen]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앞에 세우는[Vor-stellen: 표상하는] 작용은 마치 직관이 이것을 행하지 않거나 다른 작용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직관과는 별개인 것처럼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세우는 작용이 직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직관이 그 단순한 형식에서 비추어 보면, 앞에 세우는 것으로서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성은 <미리>에의 내적인 신장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 조정의 작동 — 이것이 감성의 의미sinn이다 — 는 단순히 의지나 쾌 · 불쾌의 감정이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 일체의 가능한 술어述어 작용 전에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일체의 논리적 종합에 선행하는 순수한 촉발행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직관은 판단 · 규정 · 반성 같은 작동을 통해 그 직관의 대상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대하여>[Gegen]에 촉발로서 관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대상

과, 판단에 있어서의 그 대상의 구성 사이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론적인 — 가능한 대상으로의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 관계로서의 직관을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제2판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행위의 일체에 표상으로서 선행할 수 있는 것은 직관이며, 또한 직관이 관계 이외의 그 무엇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관의 형식이다. 이 직관의 형식은 무엇인가가 마음속에 설정(규정)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표상하지 않는 이상, 마음이 스스로의 작동에 의해, 곧 관계의 표상의 설정에 의해, 즉 자기 자신에 의해 촉발되는 양식 이외의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며, 형식에서 볼 때의 내적 감각[내관] 이외의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KrV, B 67-68)⁶⁾

6) 백종현 옮김, 268쪽. “그런데 표상으로서, 무엇인가를 사고하는 일체의 작용에 선행하는 것은 직관이다. 그리고 직관의 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것도 포함하지 않을 때, 그것은 직관의 형식이다. 직관의 형식은 무엇인가가 마음에 세워지는 경우 외에는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마음이 어떻게 자기활동에 의해, 곧 자기의 표상을 세움으로써,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의해 촉발되는가 하는 방식, 다시 말해 형식상으로 내감이다. 감관에 의해 표상되는 모든 것은 그런 한에서 항상 현상이다.”

이미 『순수이성비판』 1판에서도 칸트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우리의 내적 상태에서의 표상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KrV, A 33), 그런 한에서 그러한 **표상들의 관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다. 제2판에서 훨씬 더 복잡한 새로운 설명으로 밝혀진 것은 그런 표상들이 마음 **자체의 작동**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것과, 이런 작동이 **설립(수립)**이라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표상이든, 표상이 대체로 표상인 것은 그것이 마음 앞에 — 그것도 **마음 앞에 있는 마음 속**에 — 세워짐으로써이다. 즉, 그 표상이 놓이는 것, 그것도 **앞에** 놓이는[*pro-poniert*] 것, 즉 그 표상이 설립(수립)되는 것, 그것도 **앞에** 정립된다[*vor-gesetzt*]는 방식으로 설립(수립)됨으로써이다. 따라서 표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하나의 관계이다. 그것도 <미리(앞으로)>의 설립(수립)인 동시에 그 유지이기도 한 작용에 존재하는 관계, <미리(앞으로)>를 앞에 **세우는**[*Vor-stellen*] 것인 동시에 그것을 앞에 **유지하는**[*Vor-halten*] 것이기도 하는 작용에 존재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표상에 있어서 마음은 우선은 대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앞에 유지하며, 이렇게 <앞에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과 결합하고 하나의 것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표상이 감성의 프로세스인 한에서, 표상은 감성을 순수한 감성으로, 즉 감성적인 것 — 그것이 감성적인 한에서 — 의 형식으로 특징짓는 관계이다. 어떤 대상을 만나기 전에, 혹은 대상 구성을 위한 여건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표상은 표상 작용의 아프리오리한 자기 관계이며, 이 자기 관계가 경험의 대상들의 <에 대하여>를 세우는 것[*Gegen-stellen von Gegenständen Erfahrung*]의 가능성을 정초한다. 감성이 이러한 표상작용 일반의 단순한 관계이고, 그러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관계 표상**

이라면, 감성이란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양식이며, 양태[Modus]이며, 아프리오리한 변양[Modifikation]이다. 하지만 이 변양에 의해 감성이 맺는 관계는 우선은 타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로서의 자신과의 관계이다. 그 관계 표상이 타자와의 관계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관계 표상이 우선은 대략 표상[Vorstellung]이어야 하며, 따라서 자신 안에서 <전에(앞에)>[Vor]와 관계 맺어져야 한다. 이 <전에>는 분명히 자아나 주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마도 ‘감각’에 속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즉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서, 그것도 자신에게 신경을 쏟는 것으로서, 또 그런 의미에서 의식으로서 규정되는 감각이다. 이러한 감성의 감각은 그 표상작용에 있어서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의식과 구별되지 않는다. 자아와 타자의 구별은 이 감각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히 소원한 것이다. 이 ‘감각’은 본질적으로 <자기>—‘마음’—에 있어서의 하나의 관계이며, 타자와의 차이 이전의 이 <자기>는 관계 표상의 구축에 있어서의 내적인 변용의 운동이며, 이 운동에 의해 비로소 그려지는 지평의 내부에서 비로소 타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타자도, 칸트에게서는 표상으로서의 시간이라는 지평, 즉 유한한 ‘감각’이라는 지평 안에만 있는 타자이다. 이 시간이라는 지평 안에 들어오지 않는 타자에 대한 물음은 칸트의 표상 이론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일 수밖에 없다. 애당초 표상 일반이 성립하는가? 그 표상이 자신 안에서 안정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작동에 있어서 좌절하고, 자신의 <전에(앞에)> 속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 따라서 감각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 자기 자신보다 선행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러한 물음은 초월론적 감성론에서의 시간의 표상구조를 설명 속에서는 칸트 자신에 의해 제기

되지 않는 말이다.

대체로 관계의 순수한 형식으로서 표상은 설립(수립)되는 그때마다, 단순히 직관의 작동이 아니라 직관에로의[an] 작동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관의 <에로의>[An der Anschauung] 속에서의 작동이다 — 이 작동의 그때마다, 이 <에로의>이 표상작용 속에서 설립(수립)되기 <전에(앞에)>를 지향하는 한에서. 표상하는 직관이란 *facere ad se ipsum*[그 자신을 향해 행하다]이며, 이 속에서 직관은 스스로에 의해 촉발된다. 이 스스로에 의해라는 것은 직관이 어떠한 도구에 의해 촉발된다는 뜻이 아니다. 직관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 *sua sponte* — 촉발된다[affiziert]. 그것도 이 직관이 이 자신의 ‘ad-ficere[~에 작동하다]’에 있어서, 다름 아닌 자신의 작동의 <에로의>를, 즉 보는 것의 <에로의>[An des Scheuens], 세우는 것의 <앞에(전에)>[Vor des Stellen]를 가져온다는 방식으로, 직관은 촉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상에 있어서, 가능한 타자에로의 관계맺음이라는 양태로 감성이 작동한다고 해도, 이 표상이라는 관계가 자기 촉발이라는 것은 이미 구성된 <자기>가 자신과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작동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선은 <자기>가 하나의 관계로서 — 이 관계야말로 <자기>그 자체이다 — 관계 항을 표적으로 삼고, 이 관계 항에 있어서, 바로 그 관계가 처음으로 감각이라는 완전한 관계로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릇 감각은, <앞에(전에)>에로의 관계로서만 감각될 수 있다. 이 <앞에(전에)>에 있어서 감각이 감각으로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앞에(전에)>를 세우는 — <미리(앞으로)>로 뻗어가는 — 운동, 또 이 운동과 하나가 되어, 이 앞에 세우는 운동을 표상

에 정착시키는 작용, 이 운동과 작용이 칸트에게서는 시간이다.

따라서 자기 촉발이 마음의 촉발이라고 해도, 이미 거기에 있는 마음에 어떠한 운동이 덧붙여지고 —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직관에 있어서의 표상작용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촉발로서만 작동하는 한에서, 이 마음 그 자체가 자기 촉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촉발이란 그 말의 의미에서 볼 때, 무엇인가에로의 작동, 혹은 무엇인가에로 나아가는 작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촉발은 작동으로서의 관계, 그것도 <미리>에로의 관계일 수 있다. 이러한 촉발 작용으로서 — 즉 아피케레, 작동[afficere, ad-facere]으로서 — 감각sinn의 <자기> 그 자체가, 스스로를 유한한 것으로서 규정하는 관계맺음의 작동이다. 이 <자기>는 자신의 표상 작용의 <전에[앞에]>에로의 자신의 관계 그 자체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를 설립(수립)한다. 따라서 이 유한한 <자기>는 초월론적·감성적인 자기 촉발 속에서 작동하고, 그러므로 자신에로의 관계로서 작동하는 표상작용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물자체의 인식은 칸트에게서는 존재할 수 없다. 무릇 인식은 감성이라는 조건하에 있으며, 자신에로의 관계 속에서의 인식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관계 양태 — 대상 인식이나 의지 — 를 규정하는 이 <자신에로의 관계>의 원-형식이 칸트의 생각으로는 표상한다는 것이다. 이 레프라에센타티오repraesentatio 속에서 프라에센타티오praesentatio[현전작용]가 — 감성을 가진 존재자에게 있어서는 이것 이외의 작동방식 등은 있을 수 없지만 — 그 praesentatio 자신을 향해 수행되며, 그 때문에 자신에게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하는 표상작용으로서 수행된다. 그래서 칸트에게서는 타자에로의 초월은 표상작

용의 내재성의 지평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시간이란 이 초월의 제한의 순수한 형식에 다름 아니다. 시간이야말로 감성을 가진 존재자에게 가능한 유일한 초월의 양태이기 때문이다). 이 표상작용 — <앞에[전에]>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 — 이라는 관계가 작용(act)이며, 그것도 촉발로서 감각sinn의 <자기>의 직접적인 변용 작용이며, 즉 그때마다의 <앞에[전에]>로 신장·긴장해가는 관계맺음의 작용인 이상, 이 <자기>는 아프리오리한 초월론적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른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근원적인 시간화, 시간 일반의 시간화에 다름 아니다. 유한한 주관성의 근본구조인 표상작용이라는 관계는 시간화에 다름 아니다. 표상작용은 <앞에[전에]>를 지향하여 작동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시간을 설립(수립)한다. 표상작용으로서 감각sinn은 시간을 싹트게 한다. 그러므로 대체로 감각은 시간 감각이다. 그것은 자신과는 별개로 흐르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이 아니다. 감각 그 자체가 그 신장의 작동에 있어서 시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란 시간 산출의 작동에 다름 아니다. <자기>가 자신 앞에 있는 자신에 있어서 자신을 세우고, 그것으로 자신을 표상하고 자신의 <미리>에로 자신을 신장해 나가는 것, 그 속에서 비로소 <자기>가 <자기>로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 산출은 사고의 작동의 협동 없이 관계 표상으로서 일어나며, 감성의 내재성 속에서 순수한 초월 작용[Transzendieren]으로서 수행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화는 이 초월 작용을 내재화로서 수행하고, 이 내재화를 작동으로서의 감성으로서 수행한다. 그래서 칸트는 이 시간화를 “바로 그 형식에서 본 내적 감각[내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감각에 있어서는 유한한 <자기>의 원-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에 있어서

의 경험의 가능성들의 전체 지평이 시간화로서 소묘되고 있는 것이다.

“형식에서 본 내적 감각”은 시간을 산출하며, 이리하여 그 자체가 시간이다. 그리고 이 감각의 존재의 의미는 앞(전)에 설립(수립)·유지함으로써 표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칸트가 정식화하고 있는 시간의 존재론은 존재-정립론[Onto-Theseologie]이다. 거기에서는 시간의 존재를 정립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바로 정립에로의 정립적 관계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수립)의 변용작용이 미리 세우는 것으로서 시간화를 규정하고, 그것도 앞(전)에 세우는 것 및 자기 촉발로서 시간화를 규정한다 — 이러한 변용작용은 설립(수립)하는 것의 지평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앞(전)에 세운다는 것, 즉 표상작용이란 존재-전방정립[On to-prosthesis : 존재-보철]이다. 왜냐하면 표상작용에 있어서, 내용이 공허한 채로 그렇게 불리는 ‘마음’이 <무엇인가>에로 관계하고, 그 미리 세우는 작동 덕분에, 이 <무엇인가>가 바로 그 마음에서의 관계 속에서 — 인텐티오 속에서 — 유지(보존)되고, 게다가 이 관계란, 이 <무엇인가>가, 미리 세우는 작동에 항상 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전)에 세우는 것, 즉 표상작용의 연속성 — 전후관계로서 경험된다 — 은 그 표상작용 그 자체 또는 **관계 표상**이라는 시간의 핵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계기(繼起) 관계는 복수의 설립(수립) 작용의 전후 관계로부터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앞(전)에 세우는> 것에 의해 수행되는 설립(수립) 작용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전후 관계가 이미 계기(繼起) 관계다. 앞(전)에 세우는 것으로서의 설립(수립)에는 이미 연속성의 형식이 있다. 칸트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가 [표상들을] 마

음속에서 설립(수립)하는 양식의 형식적 조건으로서 … 계기(繼起)적이라는 관계, 동시적이라는 관계, 그리고 계기(繼起)적인 것과 동시적인 것(지속적인 것)이라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KrV, B 67)고.7) 그러니까 칸트에게서 “시간은 그 자체로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객관적 규정으로서 사물에 추가되는 것, 즉 사물의 직관의 주관적 조건들 전부를 사상한 곳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KrV, A 32).8) 오히려 시간은 바로 그런 주관적 조건에 다름 아니다. 즉, 시간이란 표상을 가져오는 직관작용을, 혹은 표상작용으로서의 감각sinn을 기저(基底)로 삼는 모든 대상 경험의 조건이며, 무릇 현상한다는 것 일반의 형식이다. 근원적인 자기 관계가 앞(전)에 세운다는 감성의 관계로서의 <자기>이며, 따라서 정립적[thetisch]인 것 — 더 정확히 말하면 전방정립적[prosthetisch : 보철적]인 것 —이며, 그러므로 가능한 대상 일반의 현상의 형식이기 때문에, 칸트는 이 관계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경험을 ‘감성론’의 표제 아래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초월론적 감성론은 정립론의 지평에서의 초월론적 전방정립론[Pros-Thetik]이다.

표상한다는 것은 감성적 마음이 자신 속에서 자신에 대해 자신을 미리 세우는 작용인 한, 결코 단순한 정립작용인 것만이 아니다. 그때 표상작용은 자신의 구성요소가 되는 모든 운동들을 하나의 종합으로

7) 백중현, 269쪽. “...우리가 그 표상들을 마음에서 세우는 방식의 형식적인 조건으로서 … 잇따름의 관계, 동시적임의 관계, 그리고 잇따름과 더불어 동시적인 것(고정불변적인 것)의 관계들을 포함한다.”

8) 백중현, 253쪽. “시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무엇도 아니고, 사물들의 객관적인 규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들에 대한 직관의 모든 주관적인 조건들을 도외시해도 여전히 사물들에게 남을 그런 어떤 것도 아니다.”

결합시키는 작용이기도 해야 한다. 이 초월론적 종합은 하나의 표상 **에로의** 〈미리〉를, 〈그 이전〉 — 여기에서부터 바로 그 〈미리〉는 멀어져 간다 — 과 더불어, 정리되고 보존(유지)된다. 시간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작용, 즉 앞(전)으로 뻗어나가는 예지(予持), 뒤로 전회하는 회고, 그리고, 하나의 공통의 운동이라는 동일성 속에서의 양자의 유지 — 모두 각각 그것만으로 아프리오리한 종합작용이다 — 를 칸트는 파악[Apprehension : 각지(覺知) · 재생산[Reproduktion] · 재인[Rekognition]이라는 삼중의 종합으로서 생각한다[KrV, A 97]. 그렇다면 파악은 표상작용에 있어서 〈앞(전)에〉를 파악하기 위해 뻗어나가며, 재생산은 〈예전에〉를 — 이것 없이는 〈미리〉도 존재할 수 없다 — 확보하며, 재인은 표상하는 자기 촉발과 재생산하는 자기 촉발 사이의 두 가지 요소를, 양자가 하나의 시간이라는 동일한 운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식에 있어서 통합한다. 세 가지 기저(基底)적 인식능력 모두가 이 초월론적 종합에 관여하고 있다. 즉, 파악으로서의 직관, 재생산에서의 구상력, 재인에서의 개념적 식별 능력으로서의 오성이다(『순수이성비판』 제1판과 제2판의 차이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표상-시간이라는 근본구조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시간 산출에 대한 오성과 그 종합작용 사이의 관여가 제2판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오성의 개념들도 표상이기 때문이다. 그 표상들은 주의하는 것 · 신경을 쓰는 것의 작동에 다름 아니다. 이러저러한 직관의 다양성은 이 작동에 의해 직관 자신을 매(개)체로서 결합되는 것이다. 「초월론적 연역」 24절의 서술에 따르면, “내관[내적 감각]”은 오성이 가져오는 ‘작동의 통일’에 의해서 ‘촉발된다’(KrV, B 153-54). 이 서술은 ‘초월론적 감성론’에서의 직관의 자기촉발에 대한 서술과 모

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 만약 오성이 ‘감관’을 닿지(건드리지) 않았다면, 즉 감관을 촉발하는 작용에 있어서 스스로도 감성적인 것으로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결코 ‘내관’이 오성에 의해 ‘촉발’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오성에 의한 ‘구상력의 초월론적 종합’이 가능한 것은, 오성이 감성의 한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즉 ‘내관[내적 감각]’의 작동에 의해 스스로에 대해 제시되는 표상들을 확정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시간 구성에 관여하는 종합의 모든 작동이 결국 ‘초월론적 구상력’의 종합에 속한다. 즉, 칸트가 ‘표상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능력의 통합 작용에 속한다. 시간이 표상작용 속에서 발생하고, 시간 자신에게 표상작용의 구조가 있다면, 시간의 기저에 있는 것은 표상을 형성하고 재생산하고 개념에 있어서 파악하는 능력이고, 이러한 표상능력 — 구상력 — 에 의해 시간 그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시간의 ‘순수한 이미지’가 전과 후의 격차를 벌이면서 이와 동시에 그 격차를 제거하는 관계, 즉 이전의 것을 이후의 것에 있어서 재인식함으로써 반복한다는 관계, 그것도 양자를 자신 속에 정돈하고 정리해 나가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표상한다는 설립(수립) 작용을 수행하는 구상력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의 시간 산출의 철학이 존재 정립론 · 전방 정립론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존재 역동론[Ontodynamik]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시간을 산출하는 표상작용에 대한 가능성 · 능력 · 힘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시간 산출의 철학은,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곧 대체로 나타나는 것, 현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지, 그러한 것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시간이 스스

로 떠맡고 있는 한에서의, 시간의 산출 조건에 대한 학일 뿐만이 아니다. 이 시간 산출의 철학은 초월론적인 현상 역동론[Phänodynamik]이기도 하다. 즉, 표상작용 속에서 현상을 시간화하고, 또 객관 경험의 조건들을 시간화하는 힘에 대한 학이기도 하다.

대체로 초월론 철학은 가능케 하는 것, 즉 가능화에 대한 철학이다. 그 가능화의 근본구조가 칸트에서는 **표상작용**이며, 후설에서는 **지향적 의식**이며, 하이데거에서는 **이해** — 가능성들 속에서 선구先驅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 — 이다. 이 세 가지 현상학 모두의 근본사상은 가능화의 구조와 시간구조 사이의 해소될 수 없는 결합이라는 생각이다. 칸트는 유한한 인식의 가능화에 관여하는 세 가지 모든 능력, 즉 직관·오성·경험적 구상력의 기초를 초월론적 구상력에서 찾아내고, 이 구상력 — 셸링은 이를 정당하게도 “하나의 것으로 형성하는 힘[Ineinsbildungskraft]”⁹⁾으로 이해했다 — 예, 오성과 직관 사이의 두 쪽의 작동을 정초지었다. 오성은 직관에 의해 채워질 수 있는 것에만 개념들을 부여할 수 있다. 직관도 또한 개념들에 의해 규제 정리統整되지 않으면, 이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직관과 개념은 “구상력의 초월론적 도식”에서 결합되어야 비로소 서로를 규정하

9) [일역재] 셰링그, 『學問的研究の方法についての講義』の第六講義「とくに哲學の研究について」를 참조

“절대적인 것의 내적 본질은 보편과 특수를 영원히 <하나의 것으로 형성하는 것[In-Eins-Bildung] 그 자체이다. 이것은 현상하는 세계에서는 이성과 구상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양자는 같은 것이며, 이성은 **이데아적인** 것에 있으며, 구상력은 **레알한** 것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셰링그, 『學問論』, 勝田守一訳, 岩波文庫, 80頁).

고 이로써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인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도식은 범주와 현상을 “매개하는 표상”이며, 모든 표상의 연결의 형식적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초월론적인 시간 규정”이다(KrV, A 138-39). 주관성의 구조, 따라서 시간화의 구조 — **표상작용** — 는 본질적으로 규정의 구조이며, 그것도 대상 규정이자 자기 규정의 구조이다. 바로 이 구조 속에서 현상으로서의 경험의 통일성과 전체성 사이의 가능성이 보장되고, 그것과 동시에 인식능력·행위능력의 작동과 그 사정범위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현상학의 어떤 한계 영역에서 — 대체로 한계영역이 야말로 사고에 있어서는 근본 영역이다 — 즉, 감정의 현상학에서 보편타당한 대상규정도 보편규범적인 행위규정도 포함하지 않는 표상능력의 구조에 봉착하고 있다. 이 표상능력은 그래서 모든 능력의 중지[유예]를 초래한다. 이 중지[유예] 상태는, 모든 능력이 가능화하고 있는 상태인 것과 동시에, 모든 능력이 불가능화할 수 있는 상태 — 역경의 상태 — 이기도 하다. 감정의 현상학에서 이러한 표상능력의 구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그때마다의 단독 판단 속에서 제시되는 표상이기 때문이다(KdU, B 24 u. 47 [215 u. 228]). 미의 판단이 언표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특정한 <이것> — 이 장미, 이 아라베스크, 이 녹색 — 이 아름답다는 것이며, 이것이 누구에게나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그 판단이 형성되는 장소인 당사자에게만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 단독 판단에는 특수한 것만이 주어진다. 보편적인 것, 즉 그 판단을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오로지 과

체로서만 부과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단독 판단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결코 언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보편성의 가능성으로서, 즉 그 보편화 가능성으로서, 모든 보편성의 기저가 되고 있는 것으로의 통로는 이 단독 판단 속에서만 획득된다. 이 보편화 가능성—칸트는 이를 ‘주관적’인 ‘공통타당성[Gemeingültigkeit]’이라고 부른다(KdU, B 23 [214])—은 모든 객관적 보편성에 선행할 수밖에 없는 이상, 개념과 초월론적 도식을 따르는 모든 보편성보다도 강력하다. 동시에 이 보편화 가능성은 객관적 보편성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가능성의 지평에 머무는 이상, 이 보편화 가능성에 있어서는 객관적 보편성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한계선도 확정될 수 있다. 그것은 오성의 개념들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한계선이며, 즉 오성의 개념들에 의한 종합 능력의 무력함과, 따라서 범주에 의한 구축물—『순수이성비판』에서의 시간 구성의 이론은 이것에 근거해 구축되어 있다—의 붕괴를 나타내는 한계선이다.

이러한 단독 판단의 엄밀한 주관성의 조건들 하에서의 시간 구조는 객관적 인식의 구축 속에서 시간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들 하에서의 시간 구조와 동일할 수 없다. 양자의 시간 구조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도 있다. 즉, 단독 판단에서 엄밀한 의미의 시간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아름다운 것의 판단에서도, 숭고한 것의 판단에서도, 시간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양자의 판단이 각각 다르지만 닮은 면도 있기 때문이다. 즉, 양자 각각에서 표상작용의 구조와 그 안에서 산출되는 시간현상 사이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우리의 관계 방식에 대해 칸트는 모든 취미 판

단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 범주—합목적성—을 탐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다. “아름다운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종종 체류한다. 이 관찰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상의 표상에 있는 매력이 반복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그 때에 마음이 수동적일 때의 체류와 유비적이다(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KdU, B 37 [222]).¹⁰⁾ 전자의 체류는 순수한 미감적 판단에 특유한 시간화의 양태다. 이것을 칸트는 매력에 의해 환기되는 주의의 체류로부터 구별한다. 칸트에게 매력은 “흡족適意의 질료”(KdU, B 38 [223])를 특징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질료는 표상의 대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관심이 표상의 단순한 감정[Gefühl](혹은 감정으로서의 표상)에 속할 수는 없다. 이 관심은 표상되는 객체에로의 인식 관심이거나 그 객체의 현존에로의 욕구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뜻에 맞는다는 것은 결코 일의적이고 본질적으로 인식관심이 아니며, 대상의 현존에로의 욕구로부터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즉, 아름다운 것의 흡족適意은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향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의 표상을 감정 속의 단순한 표상으로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아름다운 것의 감정이란 본질적으로 감정을 감정으로서 보호하고 보증하는 것의 감정이다. 그것은 단순한 정서인 한에서의 정서의 보호·보증의 감

10) 백종현 옮김, 218쪽.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음미하면서 머무른다. 왜냐하면 이 음미는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상을 표상함에 있어 어떤 자극이 거기서 수동적인 마음의 주의를 반복해서 환기시킬 때에 머물러 있는 것과(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정이며, 객체를 향한 소망을 만족시킨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것의 경험에서 — 프로이트의 용어로 말하면 — 리비도는 객체와 결부되어 작동하는 가운데 방출되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리비도 자신으로만, 즉 리비도로서 그 리비도를 보존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감정은, 그 감정 자체와는 다른 목적(그 장미를 인식한다든가, 사용한다든가)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단 자체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때문에 그 감정 자체의 순수한 수단성 [Mittelbarkeit : 간접성]의 감정일 뿐이다. 이 감정의 **수단화 불가능성** [Un-mittel-barkeit : 비접촉성]은 초월적이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객체적 상관항 없는 순수한 초월의 작동이며, 그 감정에 있어서 초월적 대상 없는 초월적 작동이기 때문이다. 취미 판단은 관심과 욕구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확실히 취미 판단에는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 목적이 있었다면, 이 판단은 목적론적 판단 —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취미판단은 (감정으로서의) 표상능력을 개념능력(오성)과 결합시키고, 그 속에서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종합적인 명제를 가져오는 이상, 취미판단이 내려지는 그때마다 “여러 가지 표상력의 상호관계”(KdU, B 34 [221])를, 그것도 개념규칙 · 경험적 관심 · 이성 개념(선)에 의해서 규제 정리 統整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순수한 미감적 판단은 합목적적이지만, 인식이나 욕구에 대해 합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합목적적인 것이다. 즉, 이 판단이 합목적적인 것은 목적의

표상 일반에게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자체는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은 능력들에 대해서다.

이리하여 목적 없이 합목적적이며, 개념 없이 개념 형성적인 이상, 미의 판단이란 목적 능력 일반과 개념 능력 일반에 대한 판단, 감정 능력 속에서 양자가 결합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즉, 판단 **가능성** 일반에 대한 판단이며, 따라서 표상 **가능성** 일반에 대한 판단이다 — 왜냐하면 표상가능성이야말로 모든 판단의 가능성과, 판단에 있어서 결합되는 표상들의 가능성을 정초하는 근본조건이기 때문이다. 미의 판단이 규정하는 것은 그 판단 자체의 가능성 조건인 “규정 가능성”(KdU, B LVI [196])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미의 판단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이 칸트의 용어법에서는 “반성적 판단력 [reflektierende Urteilskraft]”이라 불린다고 해서, 마치 이미 현존하는 역량 또는 주어진 능력이 그 자신에 되미치고, 이리하여 판단 속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체로 판단력의 발단이 되는 작용양식, 즉 객관규정을 위한 모든 제한에 선행할 수밖에 없는 작용양식이 이미 스스로의 조건을 “노리고 있는[reflektierend]”, 즉 그 판단을 위한 **힘**을 “노리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스스로의 능력에 되미치는 가운데, 이 작용양식은 단순히 자기보증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자기촉발에 의한 자기부활의 작용이기도 하다. **반성적 판단력**은 그 **효출(발현)**의 어떤 것에서도 그 힘 자체의 가능화이며, 그 힘 자체의 가능성의 가능화이며, 매개 없는 직접적인 자기 재생산이며, 따라서 대체로 표상능력 일반의 근본운동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과 그것에 수반되는 반성의 쾌를 “여러 가지 인식력의 부활”(KdU, B 37[222])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 삶(삶의 원리 그 자체)인”(KdU, B 129 [278]) 이상, 여기서 칸트는 암묵적으로 삶 그 자체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 “아름다운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종종 **체류한다**. 이 관찰이 스스로를 강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KdU, B 37 [222]) — 이렇게 쓸 때에 칸트가 제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경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계방식의 서술이 아니라 모든 반성적 판단 속에서 작동하는 근본적인 시간화의 양태에 대한 초월론적 규정이다. 이런 종류의 관찰은 모두 삶을 재부활시키는 것이며, 관찰 일반에 관여하는 능력들을 — 그것들의 소실 가능성이라는 조건하에서 —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들 자체 하에서의 체류에 있어서 그 능력들의 삶이 **재생산**된다는 것은 이것에 의해 그 능력들의 시간이 재생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산출할 때 작동하고 있는 표상 능력이 이것으로써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체류는 시간 개념의 확대의 전폭에 걸친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체류를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은 체류가 계기(繼起·잇따름) 관계 속에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상 그 자체의 상태와 여러 가지 인식력의 작동을 그것 이상의 의도 없이 유지한다”(KdU, B 37[222])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 산출을 위해서는 일단 획득한 자신의 상태를 넘어서는 새로운 표상의 발단(이니셔티브)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발단이 또 다른 표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기(잇따름) 관계의 선을 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도 없이 특정한 상태를 — 혹은 단순한 규정 가능성이라는 상태를 — 유지하는 관찰은 이 상태 아래서 체류하는 이상, **전변(轉變)하는** 표상들의 전진적 시

간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전한 자기관계에 있는 표상의 체류적 시간만을 형성한다. 이 관찰은 단순히 개별 표상의 재생산도 아니고, 표상들의 계기 프로세스의 재생산으로서, 재생산 그 자체의 최소한의 조건의 재생산에 다름 아니다. 즉, 칸트가 제1비판에서 “재생산 가능성”(KrV, A 101-102)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관찰은 기저가 되는 초월론-내적인 작용 그 자체인 것이다. 표상 작용의 힘은 **아름다운 것의 관찰 아래** 체류하는 가운데 **자신 아래** 머물러 있으며, 자신을 재생산하는 가운데 항상 새롭게 그 힘 자신이 된다. 이리하여 그 힘 자신으로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또 스스로를 강화함으로써, 표상작용의 힘은 표상들 사이의 관계의 온갖 규정에 내재하는(자신의 밑에서)[Bei-sich]라는 순수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체류는 계기(잇따름)의 관계 속에서 전진하거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체류가 아니다. 오히려 전진하거나 흘러가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체류이며, 즉 시간의 시작에로의 체류다. 대략적으로 계기(잇따름)의 관계가 여러 단계로 분해 이산되거나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체류야말로 계기(잇따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체류에서 표상능력이 그 힘 자체로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 이 유지(Halt)야말로 시간의 근거지(Halt)인 것이다. 이 체류로부터 처음으로 — 인식 관심의 규칙이나 실천적 명법 아래에서 — 시간의 계기(잇따름)의 관계가 초래된다. 그러나 그 체류 자체는 그 계기(잇따름)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모든 시간적 관계의 단순한 실마리[Anhalt]에 머물러 있다.

시간 구성에 있어서 협동하는 능력들이 정리되고 그 힘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 이러한 체류가 또한 시간의 실체성의 근거이다. 시간은

“항존하며 변전(變轉)하지 않는다”(KrV, B 225). 시간은 지속하며, 현상들의 온갖 변전에 있어서 계속 시간 자체이다. 이리하여 시간은 유한성 그 자체의 실체이다. 이러한 것은 시간의 단순한 가능성이 스스로를 가능성으로서 유지한다는 것의 자기 반복에 근거하고 있다. 즉, 초월론적 직관 형식으로서의 시간은 시간화의 근원적 양태로서의 〈앞(전)에 세우는〉 작동[표상작용]이 자신 속에 정리되고 응집하여 잠시 휴지(정지)한다는 것, 즉 체류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표상의 작동으로부터의 시간 구성에 있어서 이 휴지는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휴지는 그 표상의 작동을 억제하고, 표상의 **상태**의 단순한 재생산에 머문다는 것, 즉 〈앞(전)에〉 세우는 작동을 억제하고, 일단 획득된 〈앞(전)에〉 하에 머문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앞(전)에〉에 더욱 선행하는 〈앞(전)에 세우는〉 작동[표상작용]이라는 새로운 발단에 의해서, 이 〈앞(전)에〉가 극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체류 속에서의 휴지란 계기(기따름)의 관계라는 시간을 앞(전)에 둔 억제, 즉 제한 없는 표상작용 일반이라는 시간 앞(전)에서의 억제가기도 하다.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의 부활(활성화)에 있어서, 이 체류는 필수 불가결하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찰나의 체류뿐만 아니라, 이 체류와 함께 구성되는 — 그러므로 체류에 기초하는 — 표상의 시간 전체가 제한된 시간 형식이라는 것, 표상의 시간의 가능성들 — 이것은 여러 가지 위협이기도 하다 — 도 제한하는 시간 형식이라는 것이다. 잠재적으로는 무한히 계속되는 새로운 〈앞(전)에〉의 표상들, 즉 〈앞(전)에〉를 더욱 넘어서는 표상들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대체로 표상작용에는 있다. 그것은 단순히 스스로를 재생산할 뿐인 표상의 **상태**라는 지평과 함께 그 표상을 정립하는 작용이라는 실마리를 상실

하고, 그 기저가 되는(바탕이 되는) 설립(수립) 작용이라는 실마리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경향이다. 안정된 표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앞(전)에〉의 표상작용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발작(Raptus)에 의해 항상 소멸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찰나의 체류와 그 안에서 정리되는 표상의 시간이란 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찰나의 체류는 시간으로부터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인 것이다.

찰나의 체류는 표상의 시간의 제한된 원기형식(原基形式)에 불과하다. 이 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서열 없는 “여러 가지 표상력의 자유로운 놀이”(KdU, B 28 [217]), 오성과 구상력 사이의 “합치”(KdU, B 29 [217]), 그것도 논리적 규칙이나 내적 인과성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합치”이다. 체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식능력이 스스로 놀이를 한다. 그러나 이 놀이의 자유로움, 즉 그것이 놀이라고 하는 성격은 여러 가지 인식 능력이 — 서로에게 작동하고, 서로 일치하는 가운데 — 자신 **아래에** 체류한다는 좁은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 거기에 서는 어떤 능력이 다른 능력으로부터 과잉의 요구를 받는 것도, 능력들의 부조화(불협화음)나 공약 불가능성도, 모조리 배제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것의 표상은 그런 표상 가능성의 지평 속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 표상 가능성이라는 조건은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표상으로부터 — 즉 **상태**로서의 자신 아래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해 가능해지는 자기 관계 속에 있는 표상으로부터 — 표상의 시간으로서 산출된다. 대체로 표상의 시간은 여기서 언급하는 세 번째 비판의 문장에서 읽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것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다. 즉, 여러 가지 인식 능력의 놀이의 시간이며, 끊임없이 새롭게 안정화되는 조화 — 인식능력 상호간의 조화와 개별 인식 능력 각각의

자기 조화 — 의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은 그 작동의 전체에서 총체적으로 감성에 속하며, 칸트가 말하는 자연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한 자연력으로서의 감성에 과잉 요구를 하는 경험의 있다. 그러한 경험은 구상력이 스스로의 수단을 갖고서는 하나의 제시·표상·이미지로 정리할 수 없는 현상(phenomenon) 또는 현상의 다양체와 조우할 때 항상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숭고한 것**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경험을 확실히 칸트는 휩소스[ὕψος] 및 수블리미타스[sublimitas]에 대한 철학적 분석·수사학적 분석의 전통 속에서 압도적인 자연 현상自然事象과 거대 건축물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칸트의 말에 따르면, 이 경험의 원리는, “비록 우리가 이 원리를 항상 의식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극히 평범한 판정의 기초에 이 원리가 존재할 수 있다”(KdU, B 106 [262])¹¹⁾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식을 뒤흔드는 트레멘둠[tremendum: 진감震撼·경외할 것]이 숭고하다는 것은 아니다. 의식에는 전혀 인식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경험이 이미 숭고한 것이다. **[일역본은 여기서 (2)로 넘어간다.]**

모든 숭고화 전에 있는 이 숭고한 것의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경험은 시간 측정이라는 의미에서의 — 그런 한에서 시간 발생이라는 의미에서의 — 시간 규정의 경험이다. 『판단력비판』의 「숭고한 것의 판정에서 흡족의 질에 대하여」라는 질[제27절]에서 칸트는 공간의 파악(apprehensio)을 **전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전진은 잠재적으로는 무한한 것이므로, 여전히 표상의 구조와 일치할 수 있기 위해

11) 백종현 옮김, 272쪽. “...사람들이 비록 그 원리를 언제나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리는 가장 평범한 판정들의 기초에도 놓여 있을 수 있음...”

서는 하나의 직관이라는 단일성[단위]에로의 총괄(comprehensio)이 필요하다(KdU, B 87 [251-252]). 그때 ‘직관의 단일성’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로 직관이 직관일 수 있는지 여부가 그것에 입각해 결정되는 양이다. 그리고 직관에서의 표상의 단일성은 하나의 **순간**이라고 칸트가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순간은 **배진**(背進, 역진)을 통해서만 획득된다. 계기繼起하는 여러 가지 시간 계기契機는 배진(역진)에 있어서 역방향으로 — 즉 재생산의 작용과 그것에 수반되는 재인再認의 작용에 있어서 — 바라보거나 총괄됨으로써 **동시 존재**라는 양태로 이미 지화가 되어 눈앞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동시 존재가 얻어질 때에는 칸트가 **시간 조건**이라고도 부르는 시간 형식, 즉 계기(잇따름) 관계는 폐기된다. 칸트는 이렇게 썼다.

어떤 공간의 측정(파악으로서의)은 동시에 그 공간을 그리는 것이며, 따라서 구상의 작동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움직임, 하나의 전진[Progressus]이다. 이에 대해 다수성을 사고내용의 단일성이 아닌 직관의 단일성으로 총괄하는 것, 따라서 계기繼起적으로 파악된 것을 하나의 순간[Augenblick]으로 총괄하는 것은 하나의 배진[Regressus]이다. 이 배진은 구상력이 전진할 때의 시간조건을 다시 폐기하고 **동시존재**[Zugleichsein]를 직관적인 것으로 만든다.(KdU, B 99[258-259])¹²⁾

12) 백종현 옮김, 267쪽. “(포착으로서의) 공간의 측정은 동시에 공간의 기술(記述)이며, 그러니까 상상에서의 객관적 운동이고 하나의 전진이다. 이에 반해 여럿[多]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 대체로 시간의 추이는 전진하는 표상작용 속을 멈추지 않고 추이하는 이상, 하나의 시간 추이로서 규정되기 위해서는, 배진에 있어서 다시 현재화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리하여 그 자체는 계기繼起적이지 않은 직관, 따라서 시간적이지도 않은 직관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직관에서의 총괄, 즉 순간에서의 총괄은 칸트에 따르면,

그러므로(시간계기가 내적 감각과 하나의 직관 사이의 조건인 이상) 구상력의 주관적인 움직임이며, 이 움직임에 의해 구상력은 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 폭력은 구상력이 하나의 직관으로 총괄하는 양이 커질수록 점점 더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KdU, B 99-100 [259])¹³⁾

다른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시간화의 구조로서의 <앞에 세우는> 가운데 수행되는 구상력의 움직임은, 여기서의 서술에 의하면, 앞에 세우는 작동에 의한 시간 계기를 정리하고, 지금에 있어서 과거를, 이후

을 사상(思想)을 하나統一性이로가 아니라, 직관의 하나로, 그러니까 현순간에 순차적으로 포착된 것의 하나로 총괄함은, 상상력의 전진에서의 시간조건들을 다시 폐기하고 동시임을 직관화하는 하나의 배진이다.”

13) 백종현 옮김, 267-268쪽. “그러므로 이 총괄은 (시간계기는 내감과 하나의 직관의 조건이므로) 상상력이 내감에게 강제력을 가하는 상상력의 하나의 주관적 운동으로, 이 강제력은 상상력이 하나의 직관에 포괄하는 양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현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 있어서 이전以前을 보존하고, 동시적이지 않은 것을 동시적으로 하고, 하나의 순간에 있어서 직관에 가져오려고 할 때, 바로 똑같은 구상력에 의해 폭력을 가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간적 연장의 잇따른 계기契機들이 하나의 계기繼起 관계에 있어서 포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그러한 계기契機들이 그 시간적 연장과는 역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진에서의 배진에 있어서 구상력은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한다. 이때 구상력은 스스로의 작동에 의해서 시간 형성을 — 따라서 스스로의 작동을 — 억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 이상으로 칸트의 고찰에 의해 말해지고 있는 것은, 순수한 직관 형식으로부터의 근원적인 시간화로서의 표상 작용이, 대체로 표상 작용으로서, 즉 앞에 세우는 작용으로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으로 수행될 때마다, 이 작용이 스스로의 감각 — 시간 감각 — 에 역행하는 배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은 존재하기 위해서, 시간이 억제되어야 한다. 시간 감각에는 반시간 감각이 포함되며 시간화에는 탈시간화가 포함되며 앞에 세우는 표상 작용에는 더 이전을 향해 뒤에 세우는 작용이 포함되며, 따라서 정지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한 직관형식이 작동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정지작용이 그 형식을 중지(유예)하게 하는 것이다.

칸트의 고찰에서 암묵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시간을 대가로 함으로써만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시간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간의 역설적 존재마저도 하나의 노력에 그칠 수밖에 없다. 동시적이지 않은 것을 동시화하기 위해,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구상력은 단순히 배진방향을 취함

으로써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배진방향으로 전진해감으로써 또 다른 폭력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며, 시간에 — 즉 스스로에게 — 폭력을 가하는 바로 그런 한에서 시간의 폭력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고찰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크기의 척도를 하나의 직관 속에 도입하려는 노력 [Bestrebung]은 대략 크기의 척도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merklich]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주관적으로 보면 반목적적인[zweckwidrig] 표상 양식이지만 객관적으로는 크기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따라서 합목적적인[zweckmäßig] 표상 양식이다. 그때 구상력에 의해 주관에 가해지는 그 폭력은, 그것도 마음의 규정 전체에 있어서는 합목적적이라고 판정된다.(KdU, B 100 [259])¹⁴⁾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표상 양식**은 수많은 표상 양식 중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표상이 마음의 자기 촉발로서 — 따라서 시간 발생으로서 — 작동할 때, 스스로를 직관으로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표상이 취

14) 백중현 옮김, 268쪽. “그러므로 그걸 포착하는 데 현저한 시간이 요구되는, 크기들에 대한 하나의 척도를 개별적인 직관 안에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주관적으로 보면 반목적적이지만, 객관적으로는 크기 평가에 요구되는, 그러니까 합목적적인 표상양식이다. 이때 그럼에도 상상력에 의해 주관에 억지로 가해지는 바로 그 동일한 강제력이 마음의 **전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이다.”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양식이다. 이 표상양식은 시간발생을 중단시켜야만 시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중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해야 시간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폭력이 단순히 표상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시간발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표상능력 그 자체에, 즉 구상력에 가해진다. 이 이중적 폭력은 마음에 있어서는 비합목적적이다.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촉진되는 동시에 억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그때 마음은 감성의 기관 및 생명력으로서 부활될 때야말로 마비되어야 하고, 자신 속에서 척도를 찾아낼 때야말로 바로 그 척도를 스스로 파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억제하는 것도 언제나 불가능한 일이다. 시간을 억제하여 확보하려는 구상력의 노력을 넘어서 바로 그 구상력에 의한 표상작용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은 시간에 있어서 ‘비합목적적[unzweckmäßig]’이며, 표상작용은 표상작용에 있어서 ‘비합목적적’이며 표상능력·시간화 능력으로서의 구상력은 그 능력 자신에게 있어서 ‘비합목적적’이다. 시간은 일단 수립된 <앞에>부터 다시 이전으로 배진하려 하는 가운데, 어떠한 <앞에>도 넘어서 또 다른 <앞에>로 나아가고, 표상 속에서 바로 그 표상을 초월해 나아가고, 표상능력 속에서 바로 그 능력[Vermögen] 자신을 — 그 <앞에> [Vor]도, 가능성[Mögen]도 — 초월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비합목적적’인 초월이야말로 **시간**이다. 이것이 초월론적인 직관형식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은 문제없다고 할 수 없다. 형식인 것 치고는, 이 초월에는 완결된 통일성이 없다. 이 초월은 전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결코 하나의 직관이 될 수 없다. 바로 그 전진이 한 순간으로 수축하는 것

이 항상 막히기 때문이다. 이 초월은 객관적 경험의 가능화라는 의미에서 초월론적인 것도 아니다. 표상능력 속에서의 그 가능화는 그 자체로 이미 그 능력의 지평을 넘어버렸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ultra*-초월론적 움직임으로서 자신에게 상응하는 어떤 인식능력 속에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다름 아닌 스스로의 원천이 되는 표상능력에 과잉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표상작용으로서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본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시간에 있어서 표상능력은 스스로에게 과잉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직관에서의 포착의 총합”의 기초는 — 『순수이성비판』의 초월론적 연역에 있어서 순수한 직관형식으로서의 시간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의 계기들의 다양성을 정리하기로 했던 “파악의 종합”(KrV, A 99)의 기초는 — 이미 붕괴되었다. 마찬가지로 파악의 총합에 수반되어야 할 재생산의 종합도 해소하고 있으며, 파악되고 재현재화된 시간 계기 각각의 자기동일성을 보증해야 할, 개념에서의 재인의 종합도 해소하고 있다. 즉, 시간 구성에 필요한 근본 구조의 전체가 해소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칸트의 표상철학에서 자신 안에 정리된 하나의 순간으로 시간계기를 총괄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항상 더 앞에 세워지는 — 앞서서 세워지는 — 표상에 의해 휩쓸리고, 찢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이란 —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 바로 표상작용으로 내달리는 이 균열이며, 표상작용 자신에 의한 표상작용의 갈라진 틈이다. 무릇 시간이란 *tempus ex tempore*[시간에서 나오는 시간, 즉흥의 시간]이며 *tempus ex raptu temporis*[시간의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시간]이다. 즉, 표상작용 · 직관 · 개념 · 이미지에서 그 표상작용을 떼어내는 균열

로부터 나오는 시간이며, 표상작용의 <앞(전)에>로부터 나오는 시간이며, 모든 <앞(전)에>를 세우는 작용도, 안정된 표상으로 <앞(전)에>를 정리하는 작용도 넘어가는 <앞(전)에>로서의 시간이다. 표상이라는 종합의 구조와 정립적 존재의 지평 속에서 아직도 보존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잠재적으로는 무한한 시간적 연장을 하나의 직관의 전체성으로 총괄하는 것이 어차피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실패는 칸트가 강조하고 있듯이 주관적 직관에 있어서는 확실히 **반목적적**이지만 “마음의 **규정 전체에 있어서는 합목적적**이다”(KdU, B 100[259]). 즉, 직관 능력의 좌절은 합목적적인 것이며, 따라서 미감적인 판단능력의 좌절도, 이 능력의 기저인 표상능력의 좌절도 합목적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식 · 욕망 · 감정의 근본능력 그 자체의, 이런 무능력(不能力)이 합목적적일 수 있으려면 이 무능력이 눈에 보이고, 폭력으로 가해지고, 불쾌로서 느껴져야 한다. 즉, 구상력의 이 좌절마저도 바로 그 구상력의 경험 — **반성적**-초월론적 경험 — 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구상력이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무능력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구상력이 자신과는 별개여야 하며, 자신의 타자성에서 스스로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 구상력이 자신의 표상 무능력 그 자체조차도 표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에 의해 표상 능력을 넘어 스스로의 표상작용을 **확장**해야 한다[Kd U, B 101, 115 u. 124 [259-260, 268 u. 274]]. 요컨대 구상력이 ‘가능성’이라는 범주의 지평에서 떠나가고, 그뿐 아니라 오성 개념의 지평 전체로부터 떠나가야 한다. 이때에만 표상능력은 자신의 좌절을 불쾌로서 경험할 수 있고, 직관이 가져다주는 감성적일 수

밖에 없는 표상의 쾌에 이 불쾌를 연결시킬 수 있다. 표상의 시간의 표상 불가능성이 그 자체로도 표상 가능하다 — 그러나 그것이 표상 가능해지는 유일한 심급은 표상작용 속에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표상에 있어서의 <미리>의 단순한 움직임 속에만 있다. 바야흐로 이것이 칸트가 쓰고 있듯이 숭고한 것의 감정에 있어서 **발견**되는 것이다[KdU, B 100 u. 105 [259 u. 261]]. 이것에 의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시간적 종합의 좌절이 “마음의 규정 전체에 있어서는 합목적적”일 수 있는지가 밝혀진다.

숭고한 것의 감정의 **질**이란 이 감정이 어떤 대상에 대한 미감적 판정 능력에 대한 불쾌의 감정이라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불쾌가 합목적적인 것으로 표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주관에 고유한 무능력이 똑같은 주관의 무제한적인 능력의 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마음은 전자의 무능력을 통하지 않으면 후자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미감적으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이다. (KdU, B 100 [259])¹⁵⁾

무제한적인 능력, 즉 감성의 조건들에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시간

15) 백종현 옮김, 268쪽. “숭고한 것의 감정의 **질**은, 그 질이 어떤 대상에 대한 미감적 판정능력에 대한 불쾌의 감정인데, 거기에서 그 불쾌는 그럼에도 동시에 합목적적인 것으로 표상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그 자신의 무능력이 같은 주관의 무제한적인 능력의 의식을 드러내고, 마음은 그 무제한적인 능력을 오직 그 자신의 무능력에 의해서만 미감적으로 판정할 수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감각의 조건들에도 제한되지 않는 능력의 의식에 대한 접근로가 마음에는 있다. 이 접근로는 “드러내다[Entdeckung: 발견하다]”에 의해서 개척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험, 더 정확하게는 두 가지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하나의 직관으로 시간을 총괄하는 것의 “무능력”의 감정이다. 둘째, 이 무능력의 감정조차도 그 총괄에의 ‘노력’에 대한 제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감정이다. 이 ‘노력’이 좌절되더라도 이 노력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노력이 좌절된다는 바로 그것에 의해, 그리고 이 좌절 속에서 마음의 ‘진동[Erschütterung]’[KdU, B 98 [258]]이나 ‘당황[Bestürzung]’ 또는 ‘당혹[Verlegenheit]’[KdU, B 88 [252], 즉 ‘부정적인 쾌’가 야기됨으로써 (KdU, B 76 [245]), 이 노력이 노력이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이 노력 그 자체가 시간이라는 무한한 것을 하나의 전체로 총괄하여 생각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표상작용의 능력은 그 표상작용이 어떠한 때에도 대상적인 표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의 실패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다. 오히려 시간 속에서의 표상 능력의 제시에 실패함으로써만, 그 표상능력이 ‘드러나고’ ‘환기’되며, 혹은 ‘느낄 수 있게 되는’(KdU, B 105 [262]) 것이다. 모든 가능한 불쾌를 통한 저편의 쾌 안에 나타나는 이 능력을 칸트는 “절대적 전체의 이념”의 이성능력이라고 부른다(KdU, B 101 [260]).

이 “절대적 전체의 이념”에 있어서 모든 직관으로부터 — 미감적 이념에 있어서의 모든 직관으로부터도 — 벗어나는 무한한 시간 경과가, 하나의 통일성으로 정리된 것으로서 표상되고 있다. 이 이념에 있어서는 “끝나지 않는 전진의 절대적 전체성의 불가능성”(KdU, B 94 [255])이 바로 그 전체성의 현실적인 표상으로 반전하고 있다. 거기에

서는 표상의 시간의 무한성이 — 이 무한성을 앞에 두고서는 표상 능력 등은 무와 마찬가지로 — 총괄되어 하나의 순간이 되고 있다. 즉, 시간 계기(繼起)에서의 다양한 것을 “하나의 표상에 포함”하는 “절대적 통일성”으로서의 표상(KrV, A 99)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 전체의 이념”이란 “총괄된 무한성”(KdU, B 94 [255])으로서의 순간의 이념이다. 이 이념은 분명 표상의 시간의 무한성의 “지성적 총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감성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초감성적인 감정, 즉 감성의 모든 척도를 넘어 감성적인 감정이다. 이 이념의 작동 하에서 대상은 “숭고한 것으로서 불쾌를 통해서만 가능한 쾌를 수반하여 받아들여진다”(KdU, B 102 [260]).¹⁶⁾ 따라서 시간의 비합목적성은 이 순간의 이념에 대하여 합목적적이다. 이 이념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표상이 구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이념에 있어서의 시간의 구출은 시간으로부터의 시간의 구출일 수밖에 없다. 이 구출은 표상작용의 발단이 되는 단순한 <미리>의 의미에서의 <앞에>의 구출이며, 그 자신은 무조건적인 것인 시간이라는 조건의 구출일 수밖에 없다. 즉, 이것이 시간으로부터의 시간의 구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이념에 있어서 시간이 시간 속에서의 경과로서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로서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이성의 안티노미(이율배반)라는 제목 아래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의 경우와 달리 숭고한 것의 논의의 어디에서도 현상영역을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서의 문제는 오히려 현상성 그 자체의

16) 백종현 옮김, 269쪽. “...대상은 오직 불쾌를 매개로 해서 가능한 쾌와 함께 숭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건들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 조건들, 즉 순수한 직관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이 보증될 수 없다면, 감성과 오성의 작동이 인식에 있어서 근거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인식의 가능성을 기초할 수 있도록 절대적 전체라는 이성 이념이 개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숭고한 것의 정서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제1비판에서는 모든 인식의 작동에 기저에 놓여 있던 직관 형식과 오성 형식이 서로 합치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형식적 통일성에서만 직관형식과 오성형식은 완전한 초월론적 직관형식을 제시할 수도 있고, 따라서 완전한 인식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성의 수 개념이 아무런 방해 없이 무한으로 전진하는 동안에는 이 수학적 전진을 따라가고, 이 전진운동을 하나의 정리된 표상으로 총괄하려는 직관의 시도는 아무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표상작용에 있어서 파악된 것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종합을 위해서는 또 다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KdU, B 88[252])는 것이며, 이렇게 시간표상의 근원적 종합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이 “약간의 시간”이 그 종합을 무한하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상작용과 표상의 총괄 사이의 비대칭, 수 개념의 전진과 미감적 총괄 사이의 비대칭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감성과 오성 사이의 비대칭이다. 이 비대칭이 ‘내적 감각’의 표상작용을 분열시키고, 시간 자신의 표상 가능성을 넘어 시간을 연장시키고, 이리하여 대상 인식의 근본 조건을 멀리하게 만든다. 표상작용으로서의 시간발생에 내재된 이 비대칭은 단일성·단위라는 범주의 성취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양이라는 범주 분류 전체의 성취를 방해한다. 이 비대칭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에 대응해야 할 직

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만 똑같은 크기 [양]이다”(KdU, B 84 [250]).¹⁷⁾ 이와 동시에, 표상의 전진의 총괄될 수 없는 무한성에 의해서 구상력의 종합능력을 넘는 과잉 요구가 이뤄짐으로써 실제성과 그것을 포함한 질이라는 범주 분류가 역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이때 대상의 사상성(Realitas phaenomenon)(KrV, A 143 [auch: A 146,166,168 u. 265])은 느낌의 무능력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 간신히 “부정적인 제시”(KdU, B 124 [274])를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관계라는 범주 분류는 구상력의 분열의 감정으로서의 숭고한 것에 있어서 작동을 정지시키고, 대상 인식의 양상(가능성 · 현존재 · 필연성)은 그 대상 인식의 조건들이 구성되는 가운데 그 대상 인식에 있어서 ‘반목적적’(KdU, B 100[259])인 것에만 조우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표상의 총합을 넘어서는 표상작용의 힘에 의해서 범주 전체가 붕괴된다. 이와 함께 시간 구성에서의 직관과 오성 사이의 조응관계는 말소되고, 마음의 자기 촉발은 수 개념의 무한성에 의해 촉발의 과잉요구로 물리게 되며, 이 과잉요구에 의해 마음의 촉발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숭고한 것의 감정이 “감각의 모든 기준을 넘어서”, “구상력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KdU, B 92 u.93 [254 u. 255])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히 제1비판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초월론적인 시간 규정”이 “오성 개념의 도식”으로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 시간이 직관과 오성을 “매개하는 표상”으로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KrV, A 138 u. 39). 시간은 자신과 관계하는 표상작용, 자신과 하나로 뭉쳐지는 표상작용

17) 백종현 옮김, 255쪽. “단적으로 큰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과만 동일한 크기이다.”

의 형식일 수 없다. 그래서 대상 인식의 조건이나 보증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감성의 능력의 근본구조가 시간이라고 하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표상작용과 표상된 것의 — 파악 · 재생산 · 재인에 있어서는 — 총괄이 협동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감성의 능력에 대한 모든 관계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의 시간화가 감성 · 오성의 온갖 형식을 뛰어넘고, 스스로의 원천인 능력조차 뛰어넘는 과잉 요구인 이상, 시간은 어떤 의지할 곳도 없다. 직관 없이 계속 세는 것의 과잉에 의해, 시간이 이미 분열되고, 감성적 종합을 넘어 내몰리고 있는 이상, 시간은 표상작용의 순수한 직관형식 속에서 인식적 능력들을 매개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식성의 기능인 매개능력이 표상작용 그 자체의 구조를 규정하고 대체로 표상작용이 표상작용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상, 숭고한 것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형성의 좌절은 동시에 표상작용의 기본운동 속에서의 표상작용 자신의 붕괴, 대체로 <자기>라는 것의 원구조의 와해이기도 하다.

시간 발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실제로 발생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 그때마다 발생하는 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 구성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에 대해 칸트는 두 차례에 걸쳐 기술했다. 하나는 피라미드와 성 베드로 대성당 사이의 관찰로부터의 인용이며(제26절), 다른 하나는 — 우리가 지금까지 독해해 온 것처럼 — 무한한 공간에 직면한 시간 규정의 시도의 분석에 있어서이다(제27절). 둘 중 어떤 경우든 칸트가 주석(註記)하고 있는 것은 표상들을 총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총괄되는 시간 표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칸트는 피라미드의 관찰에 대해 이렇게 썼다.

기지에서 정점까지의 파악을 완성하는 데 눈은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포착에서는 후속하는 부분을 구상력이 받아들이기 전에 선행하는 부분이 언제나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총괄은 결코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KdU, B 88 [252])¹⁸⁾

이것에 이은 여러 절들의 적절한 대목에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의 척도를 하나의 직관 속에 — 즉, 하나의 순간 속에 —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KdU, B 100[259])는 것이다. 하나의 완결된 시간표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상당한 [merklich: 눈에 띄는, 두드러진]”으로 형언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시간도 또한 표상작용[앞에 세우는 것]의 시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상작용은 하나의 규정된 시간폭이라는 종합적 표상을 번번이 그때마다 뛰어넘어버리고, 그것보다도 모든 의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표상작용의 <미리>는 **항상** 하나의 표상으로 총괄되는 시간보다 크고, 표상작용의 시간은 **항상** 이것을 앞에 두고는 일체의 크기가 — 어떠한 양을 가지더라도 — 작은 것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크기이다. 모든 시간량·공간량의 구성에는 — 그 양이 무한량으로 여겨지는 때조차 — 이 시간이 필요한 이상, 이 표상의 시간은 일

18) 백종현 옮김, 259쪽.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눈이 지면에서 피라미드의 정상까지 포착을 완성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 포착에서는 언제나 상상력이 마지막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처음 부분들은 그 일부가 소실되어, 총괄은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

체의 표상된 시간과 달리 수학적으로 숭고한 것에 대해 칸트가 말하고 있는 것의 유일한 시간적 지표가 되고 있다. 칸트는 수학적으로 숭고한 것을 “단적으로 크다(absolute, non comparative magnum[비교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크다])”고 정의하고, ‘양[quantitas]’이 아니라 ‘크다[magnitudo]’라고 부르고 있다(KdU, B 81[248]). 표상작용의 “상당한 시간” 그 자신은 단적으로 큰 시간이 아니며, 칸트가 ‘순간’이라고 부르는 절대적 전체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상작용의 시간은 “총괄된 무한성”(KdU, B 94[255])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은 총괄작용의 시간으로서 모든 가능한 총괄을 뛰어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의 전체성의 가능성의 조건일 뿐 아니라 그 불가능성의 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불가능성의 조건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이 표상작용의 시간이 시간종합 가능화에 있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간종합이야말로 표상작용의 시간의 텔로스 — 앞에 세워진 것 — 이며, 그로부터 표상작용의 시간의 **노력**도 규정되어 있다. 즉,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때까지 지나간 시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간 종합의 **노력**이 존재한다면, 이 선회의 노력 그 자체 속에서 이미 하나의 총괄된 시간 다양성이라는 표상이 작동하고, 따라서 순간의 이념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시간의** 잉여 — 그때마다의 잉여를 더 넘는 잉여 — 를 표상함과 동시에, **시간으로서의** 하나의 전체를 표상한다고 하는 시간화의 이중구조야말로 숭고한 것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것이다. 확실히 칸트는 논술의 어느 대목에서도 표상작용의 시간과 숭고한 것의 감정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칸트의 서술로부터 분명한 것은, 숭고한 것에 대해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규정이 시간화의 무한성과 시간의 전체성 사이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칸트가 “모든 관점에서 (일체의 비교를 넘어서) 크다, 즉 숭고하다”고 부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양태에 있다. 즉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기준을 그 자체의 바깥에서 요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그 자체 속에만 구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만 동일한 크기이다”(KdU, B 84[250]).¹⁹⁾ 표상작용의 시간은 표상 가능한 한에서 최대의 시간마저도 넘으며, 모든 전진의 무한성도, 전진할 때 배진의 무한성도 넘어서고 있다. 이 시간은 초무한超無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으로서는 아직 절대적인 크기는 아니다. 이 시간은 분명 초무한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합에의 단순한 노력으로서, 순간의 통일성에 이르기 직전에 계속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로 이것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은, 이 — 언젠가 와야 할 — 통일성으로부터 되돌아보아 이 시간 자신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표상작용의 시간은 그때마다 달성되는 표상을 넘어서고 그때마다의 표상 속에서 획득되는 감각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만이 시간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감각을 끊임없이 앞서 나가는 것만이 모든 감성적인 것에 대해 그 대상성의 시간 조건을 부여할

19) 백종현 옮김, 255쪽. “그러나 어떤 것을 크다고 부를 뿐만 아니라, 단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관점에서 (일체의 비교를 넘어서) 크다, 다시 말해 숭고하다고 부를 때, 사람들은 이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것에 알맞은 자자를 그것의 밖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것의 안에서 찾을 것을 승낙한다는 점을 알 것이다. 단적으로 큰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과만 동일한 크기이다.”

수 있다. 그러므로 표상작용의 시간은 감성적인 것의 구성조건으로서, 그리고 스스로 감성적인 것에 속하면서도 그때마다 감성적인 것 이상의 구성조건으로서 적어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숭고한 것은 그것을 단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각의 모든 기준을 넘어선 마음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KdU, B 85[250]).²⁰⁾ 현상에 있어서의 외연적 무한성으로서든, 현상적 힘의 내포적 무한성으로서든 자연은 스스로를 총괄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정리될 수 없다. 바로 그 총괄의 움직임이 모든 총괄된 표상을 더욱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자연의 표상 불가능성 그 자체가 이념에 있어서의 바로 그 자연의 표상 가능성을 — 부정적으로 — 고시告示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총괄된 시간 표상 발생에 소요되는 표상작용의 시간은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최장의 시간 표상의 연속보다 더욱 길게 지속된다. 이 잉여시간은 사고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지만, 표상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표상되는 것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표상작용의 시간은 자신의 표상 불가능성을 이념에 있어서 스스로가 표상되고 있는 것의 표상으로서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칸트는 숭고한 것을 한층 더 이렇게 정의한다. “숭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연의) 대상이다. 즉 이 대상의 표상은 자연에 도달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이념들의 제시로서 생각하도록 마음을 규정한다”(KdU, B 115[268]).²¹⁾ 그러한 제시의 첫 번째

20) 백종현 옮김, 258-259쪽. “즉 숭고한 것이란 그것을 단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각의 모든 재척되를 뛰어넘는 마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21) 백종현 옮김, 280쪽. “즉 숭고한 것이란 그 표상이 마음으로 하여금 자연의 도달

이념(idea princeps)이 절대적 전체라는 이념이다. 우리는 이 이념을 주관적으로 — 표상함으로써 —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KdU, B 115-16[268]).²²⁾ 그러나 이 제시 불가능성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지성적인 표상, 시간의 하나의 전체라는 이념, 즉 순간의 이념밖에 따를 수 없는 노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 순간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순간이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 순간이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이념의 순간에 대해 분명한 것은 시간이란 그때마다 시간의 잉여라는 것이다. 즉 시간이란 이미 지나간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표상작용의 전진 그 자체이다. 그것은 재생산에 있어서 되돌릴 수도 없고, 이미 달성된 시간적 관계에 머물 수도 없는 전진, 그러므로 표상 불가능한 전진 그 자체이다. 그 한편, 이념의 순간에 대해서는, 아래의 것도 동시에 분명하다. 즉 시간은, 시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한 — 순간이란 시간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 결코 시간의 잉여로서만 생각할 수 없고, 항상 하나의 시간 전체에 있어서의, 잠재적으로는 무한한 일체의 잉여의 **절리**로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분리된** 시간, 시간의 **절대적인 것**[Absolutum]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대적인 것이 있기에 모든 표상작용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분리작용 · 해방작용이다. 무한한 시간적 전진을 하나의 순간의 전체성으로 총괄하려는 ‘노력’이 ‘쓸데없는

불가능성을 이념들의 현시로 생각하도록 규정하는 (자연의) 대상이다.”

22) 백종현 옮김, 281쪽. “...이 현시를 객관적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지만”

[vergeblich]’ 것이라면(KdU, B 115[268]), 이 쓸모없음은 멈추지 않는 시간화를 계속하는 표상작용의 결과[Ergebnis]일 뿐이 아니다. 이 쓸모없음은 무한한 시간 연속을 희생시키는 것[Hingabe]이며, 또한 순간이라는 이념적 시간을 해방시키는 것[Freigabe]이다. 이 쓸모없음과 함께 경험되는 것은, 시간의 무한한 구성 운동 속에서 시간 자신이 끊임없이 휴지한다 — 시간의 표상들이 ‘소실된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다(KdU, B 88[252]) — 라는 것, 그리고 바로 이 휴지에 있어서, 시간이 그 때마다 새롭게 시간 전체성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절대적** 전체의 이념이란 이미 결정된 모든 조건에서 분리된 전체, 즉 해방되어 독립된 전체라는 이념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이념의 능력이란 **독립** · 자유의 능력이며, 자신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표상작용의 능력이며, 표상작용의 시간의 능력에 다름 아니다. 이 시간은 표상작용 시간인 이상, 표상작용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시간, 즉 일체의 구성된 표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며, 시간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시간이다. 이 자유로운 시간 — 즉 이념의 시간, 순간의 시간 — 은 계기繼起 관계와 그 무한한 계속 사이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표상작용이 스스로의 <미리> 이외에는 어떠한 범형도 갖지 않고 시작되는 이상, 이러한 표상작용의 무조건성의 시간으로서 생각되어야 한다. (아까 인용한 이념들의 제시와 관련된 숭고한 것의 정의에 칸트가 가하고 있는 설명은, 여기에 기술된 것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칸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념이라는 것은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의 직관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의 경험적 표상 능력을 (수학적으로든 역학적으로든) 확장한다면, 절대적 전체성의

독립성의 능력으로서 이성이 참여해 왔으며, 감각의 표상을 이념들에 적합하게 하려는 마음의 노력을 — 쓸데없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KdU, B 115[268], 강조는 인용자).²³⁾

이러한 시간의 자유의 이념으로서의 시간 이념에 대해 칸트는 제1비판에서 자유라는 세계론적 이념을 논하는 맥락 속에서 주기(註記)를 부여하고 있다. 이 주기(註記)가, 제3비판에 있어서의 숭고한 것의 분석에서의 사고의 결음을 한층 분명히 해 준다. 제1비판의 그 대목에서는 행위가 지닌 예지적인 성격, 즉 자유의 이념 하에서 작동한다는 성격이 모든 시간조건의 바깥으로 추출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성격에 시간적 구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격이야말로 순수한 시간화의 성격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예지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 이전이라든지 이후라든지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행위는 시간관계를 도외시키고 보면 — 시간관계 속에서는 행위도 다른 현상들에 버금가는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 순수이성의 예지적 성격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즉, 순수이성은 자유롭게 행위하는 것이며, 자연의 원인들의 연쇄 속에서 외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시간

23) 백종현 옮김, 280쪽. “문자대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고찰하면, 이념들은 현시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경험적 표상능력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역학적으로) 자연을 직관하기 위해 확장하면, 불가피하게 이성이 절대적 전체성의 독립성의 능력으로서 부가적으로 등장해서, 감각의 표상을 이것들에 알맞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의 — 비록 헛된 것이기는 하지만 — 노력을 불러일으킨다.”

적으로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 역학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KrV, A 553)²⁴⁾

이렇게 자유로운 행위가 시간적 연속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강조한 후에 칸트는 이번에는 이 자유에 대해 적극적인 규정을 부여한다.

… 이 이성의 자유는 … 사건의 계열을 스스로에 의해 시작하는 능력으로서, 적극적으로도 특징지을 수 있다. 이리하여 이성의 자유 그 자체 속에서는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이성의 자유는 자유 의지에 의한 일체의 행위에 있어서의 무조건적인 조건인 이상, 스스로를 넘어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조건을 허락하는 일 따위는 없다 … (KrV, A 553-54).²⁵⁾ 다른

24) 백종현 옮김, 739쪽. “경험적 성격이 그것의 단지 감성적 도식일 따름인 예지적 성격에 대해서는 앞서서니 **나중**에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모든 행위작용은 그것이 다른 현상들과 함께하는 시간관계를 도외시하면, 순수 이성의 예지적 성격의 직접적인 작용 결과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은 자연원인들의 연쇄에서 외적인 또는 내적인, 그러나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근거들에 의해 역학적으로 규정됨 없이 자유롭게 행위작용한다.”

25) 백종현 옮김, 739-740쪽. “이 이성의 자유를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경험적 조건들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적극적으로 사건들의 계열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능력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이리하기에 이성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은 모든 의사에 따른 행위작용의 무조건적인 조건으로서 자기 위해 아무런 시간상 선행하는 조건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목에서는, 이 자유가 “어떤 상태를 스스로에 의해서 시작하는 능력”이라고 말해지고 있다(KrV, A 533).²⁶⁾ 둘 중 어느 쪽의 표현에 있어서도, 이 “스스로에 의해서”는 ‘sua sponte’를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이 ‘sua sponte’는 자발성[Spontaneität]의 개념에 의해서도 재현되고 있다.)

시간은 무릇 시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면 시간의 시작으로서 생각되어야 한다. 즉 ‘사건의 계열’의 시작으로서, 따라서 시간 내지 표상의 계열의 시작으로서 생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 안에서는” — 즉, 이미 경과한 시간계열 안에서는 —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음”이며, 오히려 선행하는 시간계열에 의해서 조건지어지지 않은 새로운 시간계열이, 스스로의 시작 안에서, 스스로에 의해서 개척되는 것이다. 시간이 그 자신과는 다른 시간 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 따라서 다른 시간에 의해 조건지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시간적이지 않은 것 안에 있는 시간이라도 아니라면 — 시간적이지 않은 것도 역시 시간에 있어서의 조건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 시간은 무조건적이라는 것 이외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간은 무조건적이어야 시작일 수 있고, 시작이어야 잠재적으로는 무한한 계기繼起 관계의 조건일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시작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 이외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시작인 가운데서 분리된 것 · 절대적인 것이며, 이리하여 절대적 전체이기 때문

26) 백종현 옮김, 724쪽. “그에 반해 자유라는 말은 우주론적 의미에서는 한 상태를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다. 순간이란 그때마다 시작의 순간이다. 이 시작에 있어서 시간은 선행하고 있을 일체의 계기관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며, 그러한 계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표상에서 해방되고 독립되어 있다. 시간은 어떤 일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고 후속관계 · 계기관계 그 자체도 아니다. 오히려 시간은 계기관계의 질서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 따라서 절대적인 것이며, 스스로의 절대성에 의해서만 시작되며, 스스로의 독립성에 의해서만 도래할 가능한 계기관계를 개척하는 것 그 자체이다.

시작하는 것 그 자체로서 시간은 생성 · 소멸을 끊어내는 분리작용이며, 이미 생성 · 소멸한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 단순한 표상작용, 앞에 세우는 것 그 자체이다. 절대적인 시작으로 생각될 수 있기에, 시간은 절대적 전체, 즉 순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순간이기에, 시간은 무조건 앞에 세우는 직관의 감각으로서, 미개척의 <미리>로 뻗어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 의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은 감성의 자기촉발로서, 즉 ad-facere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 작동에는 어떠한 감각 여건도 선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동 속에서, 단순한 감성이, 대상 없는 스스로의 <미리>에의 인텐티오[intentio]로서 수행된다. 이러한 시작, 즉 무조건적인 시작, 모든 시간 내적 조건으로부터 해방된 작용이 자유의 순수한 시간이다. 칸트가 자유를 “이성의 사실”이라고 부를 때, 이 호칭이 유한한 이성의 유한한 자유를 의미한다면, 무조건적인 시작으로서의 시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스스로에 의해 시작하는 이성의 사실(factum) — affectio — 이다. 이 시간은 확실히 스스로에게 대응하는 것을 경험 속에 갖지 않은 순수한 초월론적 이념이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나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이념을 생각하고, 이 이념이 가진 개척하는 힘을 지키며, 사고에 의해 새로운 다른 경험의 시작으로 하는 것의 필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경험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우선 <없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신에 의해** 시작하는 순간, 독립된 자유로운 순간의 이념으로서 시간이란 *tempus ex nihilo temporis*[시간의 무에서 나오는 시간]이다. 시간은 엑스 템포레라는 시간외성時間外性과 다름없다. 이런 사상의 실마리를 전통적인 시간표상에서 찾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자기관계로부터, 그것도 **관계 표상**으로서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간을 다름 아닌 시간으로서 — 따라서 시간외성의 불가능성으로서 — 생각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시간 계열의 시작을 단순히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조건”(KrV, A 554)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조건짓는 것은 인과성의 법칙(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든)에 따르는 계기관계 이외의 그 무엇일 수가 없으며, 즉 일단 조건지어져 통용되자마자 그 시작을 허공에 매달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 시작의 능력, 즉 이성에 대해 칸트는 이렇게 썼다. 이성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모든 시간적 사정事情 속에서 현재적이며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성 그 자체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른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태에 빠져들지도 않는다. 이성은 그러한 새로운 상태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KrV, A 556).²⁷⁾ 이성은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며, 더 본질적으로 시간 그 자체인 이상, 확실히 자신은

27)

시간 속에 있을 수도, 시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시간적 사정事情 속에서 현재적이다”라는 표현에 있어서의 ‘현재적’이라는 말은 항상 현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시작으로 부단히 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다름 아닌 무조건적인 이 부단성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성격 — 즉, 시작되는 것의 상주성常住性 — 이란 무엇인가를 제약하고 조건짓는다는 성격과 거의 양립하지 않는다. 이 조건지어진 것이라는 성격이야말로 칸트가 시작에 인정하고 또 인과성의 법칙과 결부시키는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념의 순수한 시간이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이 시간이 무조건적인 것의 부단성不斷性일 뿐이며, 결코 조건짓는 작동의 부단성은 아닐 것이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시작, 어떤 결과도 연쇄도 초래하지 않는 시작 등이라는 것은 분명 표상 불가능하다. 결과가 없는 시작 등은 아마도 사고 불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 칸트의 숭고론을 확장해서 말한다면 — 이 사고 불가능성에서조차 증명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의 내적 인과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시작이라는 절대적인 종합 이외의 종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인식에 있어서건, 실천적인 행위에 있어서건, 사고와 감정에 있어서건 다음과 같은 것밖에 있을 수 없다. 즉, 인식도 행위도, 사고와 감정도 항상 반복되고 그때마다 다시금, 무조건적인(즉 결과의 연쇄와 반복마저 허공에 매디는) 시작이며, 여러 다른 시작으로의 시작, 타자들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작된다는 것 자체는 칸트에게서는 무조건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하는 이상, 항상 무제약화·미규정화·탈조건화를 초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야 한다. 칸트는 시간을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으로 삼고, 행위를 시간의 무조건적인 조건으로 삼음으로써 초월론적 관념론의 기획 전체를 시간의 철학으로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즉 이때 <가능하게 한다> —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지어진다> — 라는 시간의 성격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화를 가져오는 단순한 표상 작용[앞에 세우는 것]에 있어서의 무조건적인 시작을 재발견함으로써 칸트는 그러한 탈부단화로부터의 시간 발생을 발견한다. 그리고 여기에 개척되는 공간에서 시간은 원인[causa]도 조건도 기저도 아니고, 오히려 그때마다 다른 시간의 시작이라는 절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이 절대적인 것은 그러한 시간의 시작에 — 끝애가 아니고 — 밖에 있을 수 없다. 이 시작의 시간은 초월론적 사고와는 또 다른 사고의 시작의 시간이기도 하다.

일역자의 말*

미야자키 류스케(宮崎裕助)

저자 베르너 하마허는 1948년생으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연구를 거듭한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요한 볼프강 괴테대학(프랑크푸르트대학) 비교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어로 번역된 책 중 저서로는 『자타율: 다문화주의 비판을 위하여(他自律: 多文化主義批判のために)』, 増田靖彦 訳, 月曜社, 2007년이 있다. 논문으로는 다음이 있다. 「헤겔의 독해 행위: ‘구역질’에 관한 트로프 조작(ヘーゲルの読解行為: 「吐き気」をめぐるトロップ操作)」, 宮崎裕助 訳, 『SITE ZERO/ZERO SITE』 제0호(특집: 미학의 임계), 미디어·디자인 연구소, 2006년; 「가면을 쓴 예술의 종언(仮面をつけた芸術の終わり)」, 清水一浩 訳, 『現代思想』, 2007년 7월 임시증간호(충특집: 헤겔 『정신현상학』 200년의 전회);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의 스케치: 프로테스탄트 가능성의 발언(불)가능성(民主主義についての講演のスケッチ: プロテスタ可能性の発言(不)可能性)」, 清水一浩 訳, 『現代思想』, 2010년 9월호.

* [옮긴이] 베르너 하마허는 2017년에 세상을 떠났다. 본문은 그가 사망하기 전인 2014년에 일본어로 출판된 것이라 이런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또한 불필요한 점은 번역하지 않았고, 원래 번역문의 (하)에 수록된 「역자 부기」도 함께 번역해 두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일본어의 기억으로는 저서에 『타자율-다문화주의 비판을 위하여』 마스다 야스히코 역, 월요일사, 207년, 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헤겔의 독해 행위--「구역질」을 둘러싼 트로프 조작」 미야자키 유스케 옮김 「SITE ZERO / ZERO SITE」제0호 (특집=에스테틱스의 임계) 미디어·디자인 연구소, 206년 / 「(가면을 쓴 예술의 끝)」 시미즈 카즈히로 옮김 「현대사상」206년 7월 임시 중간호 (충특집=에 대해) 미디어·디자인 연구소, 206년 / 「(가면을 쓴 예술의 끝)」 시미즈 카즈히로 옮김의 20호 강연 「20호」의 20회 『시미즈 카즈히로 옮김』

이 논문의 번역은 하마허 교수 밑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시미즈(清水)가 번역한 초고를 바탕으로 미야자키(宮崎)가 번역문 전체를 검토하여 다음은 후, 두 사람이 함께 확인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이 논문에서 하마허는 『순수이성비판』의 시간론에 나타나는 “(표상하다=앞에 세우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텍스트에 밀착된 지극히 섬세한 독해의 손길로 칸트의 초월론적 감성론을 관계 설정(수립)으로서의 시간 산출의 철학으로 다듬어내고 있다. 칸트의 초월론 철학은, 하마허에 따르면 표상작용(전방설정(수립))을 통한 존재정립론(Onto-Theseologie)으로 바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논문 후반부에서 밝혀지는 것은 제1비판의 객관적 인식의 구성이 가능해지는 그 시간의 기본 구조가 제3비판의 숭고론에서 한계limit에 도달하고, “표상작용 자체에 의한 표상작용의 갈라진 틈”에 의해 자멸해버리는 사태이다. 여기서 추구되는 것은 시간 발생 자체에 필요한 과잉의 시간, 즉 ‘순간’으로서의 “자유의 순수한 시간”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칸트의 초월론 철학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비판 철학의 마지막 단계에서 부각시켰던 시간의 사고다. 하마허는 여

기에서 자유로운 순간의 이념으로서만 사유할 수 있는 ‘시간외’의 시간의 철학, 요컨대 ‘엑스 템포레’로서 시간 자체의 절대적 시작을 알리는 사유의 단초를 찾아내고 있다. 이것은 초월론 철학 자체의 타자가 될 수 있는 칸트의 숨겨진 시간론의 싹인 것이다.